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성의식 및 성가치관에 관한 연구

최진^{1*}, 김선미¹

¹해전대학 보건의료정보과

A Study on the Sexual Consciousness and Valu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Related Subjects

Jin Choi^{1*} and Sun Mi Kim¹

¹Department of Health Medical and Information,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에서는 보건관련학과 대학생의 성의식과 성가치관에 대해 알아보고 남·녀 학생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충청남도에서 보건관련학과가 소재한 2개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지는 기존의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로 재수정하여 208부를 분석하였다. 성교육 횟수를 분석한 결과 '4회 이상'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에 대한 정보원을 분석한 결과, '친구'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생각을 분석한 결과, '사랑하는 사이라면 문제없다'가 51.4%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바람직한 성교육과 대학생들에게 바른 성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대학생들이 성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갖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sexual consciousness and values of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related subjects, as well as into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randomly-selected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related subjects at junior college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was remade on the basis of philological reviews and previous studies, and a total of 208 questionnaires were re-collected. In relation to the question about chance of sex education, 56.7% of respondents answered, '4 or more chances'. In relation to the question about the source of sex information, 37.5% of respondents referred to 'their friends.' In the case of premarital sex, 51.4% answered, 'it amounts to nothing in pairs of lovers.' In conclusion, the university authorities need to aggressively support students in order that desirable sex educations can be given to students and they can have right sexual consciousness and have the mature and responsible attitude to sex.

Key Words : Sexual Consciousness, Sexual Values, College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급속한 변화의 과정 속에 전통적 윤리나 규범, 보수적인 의식 보다는 서구적인 문화를 따르고 있고 이에 따라 대중매체, 성문화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1]. 이러한 변화는 대학문화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시기는 사회·심리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 아직 미성숙함을 지니고 있는 때이므로 대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많은 혼란을 거듭한다[2]. 또한 자아를 정립해야 할 성인기 초기로서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인을 만들며 다른 세대를 키워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 시기의 성숙한 성가치관과 성행위양상은 생물학적인 성(sexuality)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에서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gender)에 대한 올바른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다[3].

*교신저자 : 최진(socks20@hanmail.net)

접수일 11년 02월 10일

수정일 11년 02월 21일

게재확정일 11년 03월 10일

대학생들은 성행동에 관한 올바른 통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분명한 성지식과 건전한 성의식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일상적이면서도 일관성이 있는 성교육이 필요할 것이다[4].

사회 환경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으로나 행동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성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여 그릇된 성지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대학생의 성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더 이상 회피하거나 유보할 수 없게 되었다[5]. 따라서 성에 대해 수치스럽고 은폐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공개적이고 긍정적인 성의식을 갖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건전하게 해소하게 하며, 성에 대한 주제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성의식과 성문화를 대학 내에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6].

대학생들의 건전한 성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상담활동 등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대학생들의 성문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상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술해 내는 것이다[7]. 이를 위해 대학생들은 스스로 원하는 성교육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8]. 성교육은 생리적인 현상에 대한 짧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바람직한 성의식과 그에 따른 성가치관을 정립하게 하고 스스로 성숙한 성태도를 통한 우리의 생활양식이나 문화·사회규범에 어울리는 건전한 생활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9]. 또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에게 건전한 가정과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성에 대한 태도를 지도하는 것은 사실상 대학 교육의 중요한 역할에 포함된다[10].

성의식이나 성도덕을 확립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여러 곳에서 범람하고 있는 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 거침없이 받아들이면서 성에 대해 그릇되게 이해하여 성폭력의 문제, 이성교제의 문란, 성범죄의 복잡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정교육상 또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이들의 성적인 고민에 대해 성상담이나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11].

특히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은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를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에 그 책무가 완수되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타 학과의 학생들 보다 성에 대한 올바른 성가치관과 개념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보건교육의 하나의 범주로서 성가치관과 성의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의식 및 성가치관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나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12].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관련학과 대학생의 성의식과 성가치관에 대해 남·녀 학생별 차이가 있는가?

둘째, 보건관련학과 대학생의 전반적인 성태도와 성에 대한 지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보건관련학과 대학생의 성의식과 성에 대한 가치관을 바람직하게 형성하고, 성개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증대되는 대학 내 성관련 각종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13]. 또한 대학생들이 성에 대하여 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갖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2010년 5월 31일부터 2010년 6월 14일까지 충청남도 보건관련학과가 소재한 2개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2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사용 불가능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08부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및 수집방법

연구도구로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구성한 설문지로 질문지 조사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박선영(2002)이 연구하여 제공되고 있는 성교육관련 설문지의 내용과 이창신(2000)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14,15].

설문지 문항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평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28문항으로 구체적 문항 구성은 인구학적 질문이 4개 문항, 성의식에 관하여 묻는 문항이 12개 문항, 성가치관에 관하여 묻는 문항이 12개 문항, 또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구성한 성의식에 관한 척도 2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1.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성의식에 대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 값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7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

다고 보며 .50 이상이면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성의식이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1.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구분		문항 수	신뢰도
성의식	성태도	17	.744
	성행동	10	.836
전체		27	.856

2.3.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v. 1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성 태도, 성 가치관을 알아보고, 남녀 학생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성 의식을 알아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93	44.7
	여자	115	55.3
학년	1학년	92	44.2
	2학년	116	55.8
종교	무교	118	56.7
	불교	25	12.0
	기독교	50	24.0
	기타	15	7.2
거주형태	부모님과 함께	121	58.2
	거주		
	기숙사	23	11.1
	하숙	16	7.7
	기타	48	23.1
합계		212	100.0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자 93명(44.7%), 여자 115명(55.3%)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92명(44.2%), 2학년 116명(55.8%)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118명(56.7%), 기독교 50명(24.0%), 불교 25명(12.0%)순으로 나타났고,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121명(58.2%), 기숙사 23명(11.1%), 하숙 16명(7.7%)순으로 나타났다 표 2.

3.2. 성태도

다음은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성태도를 알아보고, 남녀 학생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성교육 경험이 있는 전체 208명에 대해 먼저 성교육 횟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4회 이상’이 118명(5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회’ 51명(24.5%), ‘2회 이하’ 39명(1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4회 이상 받은 학생들이 많았고,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3회 이상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성에 대한 정보원을 분석한 결과, ‘친구’가 78명(3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교사’ 62명(29.8%), ‘선배’ 16명(7.7%), ‘라디오나 텔레비전’ 10명(4.8%), ‘영화나 비디오’ 10명(4.8%)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친구나 학교교사를 통해 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남녀 학생 모두 대체적으로 친구나 학교교사를 통해 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외에 남자의 경우 선배를 통해, 여자의 경우 라디오나 텔레비전, 영화나 비디오를 통해 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p<.01$).

알고 싶은 성지식을 분석한 결과, ‘임신, 출산’이 40명(1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녀 성행위 기법’이나 ‘성병’이 각 31명(14.9%), ‘생식 작용(배란, 월경, 몽정, 사정)’ 29명(13.9%), ‘피임방법’ 27명(13.0%), ‘자신의 성기나 성기관의 정상성 여부’ 22명(10.6%)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임신, 출산에 대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남자의 경우 남녀 성행위 기법이나 성병에 대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 임신, 출산이나 생식 작용(배란, 월경, 몽정, 사정)에 대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성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보수적이지도 개방적이지도 않다’ 97명(46.6%), ‘보수적이다’ 69명(33.2%), ‘개방적’ 42명(20.2%)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지도 개방적이지도 않은 학생들과 보수적인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보수적이지도 개방적이지도 않은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에 비해 남자의 경우 다소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표 3] 성태도

구분	남자		여자		전체		χ^2 (p)	
	N	%	N	%	N	%		
경험	2회 이하	21	22.6	18	15.7	39	18.8	5.347 (.069)
	3회	16	17.2	35	30.4	51	24.5	
	4회 이상	56	60.2	62	53.9	118	56.7	
정보원	친구	36	38.7	42	36.5	78	37.5	26.393** (.000)
	선배	15	16.1	1	.9	16	7.7	
	학교교사	26	28.0	36	31.3	62	29.8	
	라디오나 TV	0	.0	10	8.7	10	4.8	
	영화/비디오	2	2.2	8	7.0	10	4.8	
기타	14	15.1	18	15.7	32	15.4		
알고 싶은 성 지식	성기/성기관정상 성 여부	11	11.8	11	9.6	22	10.6	31.255** (.000)
	임신, 출산	8	8.6	32	27.8	40	19.2	
	생식 작용	8	8.6	21	18.3	29	13.9	
	성행위 기법	25	26.9	6	5.2	31	14.9	
	성병	17	18.3	14	12.2	31	14.9	
	피임방법	11	11.8	16	13.9	27	13.0	
	기타	13	14.0	15	13.0	28	13.5	
성태도	보수적	28	30.1	41	35.7	69	33.2	8.189* (.017)
	보통	38	40.9	59	51.3	97	46.6	
	개방적	27	29.0	15	13.0	42	20.2	
성충동 대처방법	느껴본 적 없음	3	3.2	74	64.3	77	37.0	89.504** (.000)
	취미생활	32	34.4	11	9.6	43	20.7	
	애로영화, 음란비디오/출판물	21	22.6	5	4.3	26	12.5	
	애인/이성	20	21.5	8	7.0	28	13.5	
	윤리/도덕심으로 자제	9	9.7	8	7.0	17	8.2	
	기타	8	8.6	9	7.8	17	8.2	
성적 욕구 이해	남성이 강함	29	31.2	55	47.8	84	40.4	15.358** (.004)
	여성이 강함	6	6.5	1	.9	7	3.4	
	남녀 동일함	15	16.1	10	8.7	25	12.0	
	개인에 따라 다름	30	32.3	43	37.4	73	35.1	
	아무런 관심이 없음	13	14.0	6	5.2	19	9.1	
	합계	93	100.0	115	100.0	208	100.0	

* $p<.05$, ** $p<.01$

성충동 대처방법을 분석한 결과, ‘느껴본 적 없다’가 77명(3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생활(운동, 독서 등)’ 43명(20.7%), ‘애인이나 이성과 함께 해결’ 28명(13.5%), ‘애로영화, 음란 비디오나 출판물 등으로 해결’ 26명(12.5%), ‘윤리나 도덕심으로 자제’ 17명(8.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남자의 경우 취미생활(운동, 독서 등)이나 애로영화, 음란비디오 및 출판물, 애인이나 이성과 함께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여자의 경우 성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성적욕구에 대한 이해정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강하다’가 84명(4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에 따라 다르다’ 73명(35.1%), ‘남녀가 동일하다’ 25명(12.0%), ‘아무런 관심이 없다.’ 19명(9.1%), ‘여성이 강하다’ 7명(3.4%)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남자의 성욕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여자의 경우 남성의 성욕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자의 경우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3.

3.3. 성가치관

다음은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성가치관을 알아보고, 남녀 학생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동성애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180명(8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소 또는 가끔 느낀다’ 11명(5.3%)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다소 차이는 있으나 남녀 모두 80% 이상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순결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사랑이 문제이지 순결 그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가 107명(51.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녀 모두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44명(21.2%), ‘현대여성이려면 자유롭게 성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27명(13.0%), ‘여자는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22명(10.6%),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다’ 8명(3.8%)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남녀 모두 40% 이상이 사랑이 문제이지 순결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가치관

구분	남자		여자		전체		x ² (p)	
	N	%	N	%	N	%		
동성애	평소 또는 가끔 느낌	4	4.3	7	6.1	11	5.3	10.729** (.005)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음	75	80.6	105	91.3	180	86.5	
	기타	14	15.1	3	2.6	17	8.2	
혼전 순결	사랑이 문제지 순결 자체는 문제가 안됨	61	65.6	46	40.0	107	51.4	17.754** (.000)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임	3	3.2	5	4.3	8	3.8	
	현대여성이라면 자유롭게 성을 즐길 수 있어야 함	4	4.3	23	20.0	27	13.0	
	남녀 모두 혼전순결 반드시 지켜야 함	17	18.3	27	23.5	44	21.2	
	여자는 혼전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함	8	8.6	14	12.2	22	10.6	
혼전 성관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2	2.2	16	13.9	18	8.7	10.573* (.032)
	사랑하는 사이라면 문제없음	43	46.2	43	37.4	86	41.3	
	상황에 따른 문제	25	26.9	35	30.4	60	28.8	
	사랑과 관계없이 가능	3	3.2	2	1.7	5	2.4	
	생각해 본 적이 없음	20	21.5	19	16.5	39	18.8	
동거	절대로 안됨	9	9.7	14	12.2	23	11.1	16.955** (.002)
	결혼 전에는 피해야 함	9	9.7	32	27.8	41	19.7	
	어느 정도는 가능	33	35.5	30	26.1	63	30.3	
	사랑하는 사이라면 가능	35	37.6	24	20.9	59	28.4	
	잘 모르겠음	7	7.5	15	13.0	22	10.6	
	합계	93	100.0	115	100.0	208	100.0	

*p<.05, **p<.01

혼전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사랑하는 사이라면 문제없다’가 86명(4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황에 따른 문제이다’ 60명(28.8%),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9명(18.8%),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8명(8.7%), ‘사랑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5명(2.4%)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남녀 모두 대체적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가 63명(3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가능하다’ 59명(28.4%), ‘결혼 전에는 피해야 한다’ 41명(19.7%), ‘절대로 안 된다’ 23명(11.1%), ‘잘 모르겠다’ 22명(10.6%)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어느 정

도는 동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남자의 경우 35.1%가 어느 정도 동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27.8%가 결혼 전에는 동거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3.4 성의식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성의식을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성태도, 성행동의 긍정문항에는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하였으며, 부정문항에는 역으로 배점을 하여 채점하였다. 점수의 기준을 보수적인 도덕성에 바탕을 둔 성의식으로 보며 총점이 높을수록 개방적인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성 의식으로 본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성의식을 살펴보면 ‘성태도’(M=3.21), ‘성행동’(M=3.01)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성 의식은 평균 3.14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성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성의식과 하위요인별 성행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성의식과 하위요인별 성태도, 성행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2학년의 경우 1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성의식과 하위요인별 성행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기독교의 경우 무교나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성의식과 하위요인별 성태도, 성행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하숙을 하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5.

[표 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의식 차이

구분		성 태도		성 행동		성 의식	
		M	SD	M	SD	M	SD
성별	남자	3.25	.412	3.34	.703	3.28	.476
	여자	3.17	.461	2.75	.656	3.02	.470
	t-value(p)	1.168(.244)		6.272**(.000)		4.010**(.000)	
학년	1학년	3.10	.400	2.85	.621	3.01	.425
	2학년	3.29	.452	3.14	.796	3.24	.514
	t-value(p)	3.283**(.001)		2.916**(.004)		3.502**(.001)	
종교	무교	3.20	.432	2.97 ^{ab}	.718	3.11 ^{ab}	.488
	불교	3.08	.360	2.68 ^a	.702	2.93 ^a	.411
	기독교	3.23	.480	3.21 ^b	.722	3.23 ^b	.476
	기타	3.38	.459	3.27 ^b	.797	3.34 ^b	.566
	F-value(p)	1.551(.203)		3.790*(.011)		3.012*(.031)	
거주 형태	부모님과 거주	3.16 ^{ab}	.410	2.88 ^a	.716	3.06 ^a	.481
	기숙사	3.05 ^a	.420	3.09 ^{ab}	.431	3.07 ^a	.382
	하숙	3.43 ^c	.415	3.11 ^{ab}	.696	3.31 ^b	.461
	기타	3.33 ^{bc}	.486	3.28 ^b	.848	3.31 ^b	.519
	F-value(p)	4.258**(.006)		3.709*(.013)		4.192**(.007)	
합계		3.21	.440	3.01	.737	3.14	.490

*p<.05,**p<.01

Duncan : a<b<c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의식 및 성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올바른 성지식을 갖도록 함에 있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자료수집은 2010년 5월 31일부터 2010년 6월 14일까지 충청남도에 보건관련학과가 소재한 2개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2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사용 불가능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08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성교육 경험이 있는 전체 208명에 대해 먼저 성교육 횟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4회 이상’이 118명(5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회’ 51명(24.5%), ‘2회 이하’ 39명(18.8%) 순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정보원을 분석한 결과, ‘친구’가 78명(3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교사’ 62명(29.8%), ‘선배’ 16명(7.7%), ‘라디오나 텔레비전’ 10명(4.8%), ‘영화나 비디오’ 10명(4.8%)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친구나 학교교사를 통해 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학년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성의식과 하위요인별 성태도, 성행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2학년의 경우 1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경우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이지만 낮은 성지식과 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의 바탕이 부족하기 때문에 폭넓은 성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는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과 사회문제로의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성교육 과목을 권장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교육의 경우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임신이나 피임, 혼전 임신 시 대처 방법, 낙태 방지 등을 교육함으로써 대학생 스스로가 발생하는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며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셋째, 대학생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과거에 비해 개방적인 만큼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삶을 위한 성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성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성의식을 공유하면서 성의미를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성지식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성의식과 성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나아가 성교육이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식획득의 기회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1] 신은숙, “대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Vol.5, pp.1-40, 1997.
- [2] 강미라, “대학생의 성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Vol(26), pp.273-306, 2005.
- [3] 이정연,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대인관계간의 상관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8-74, 2001.
- [4] 이인숙, “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의식 및 성행동 연

- 구에 관한 고찰”, 극동정보대학논문집 제15집, pp.161-177, 2009.
- [5] 김문섭, “대구 한의대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Vol.10(1), pp.1-17, 2005.
- [6] 김봉순, “대학생의 성의식과 성경험 실태에 관한 연구”, 공주영상정보대학 학술논문집 Vol.7, pp.111-124, 2000.
- [7] 손혜진,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 영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학생연구 제35권, pp.117-133, 2004.
- [8] 박희두, “대학생의 성의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Vol.3, pp.95-125, 1997.
- [9] 유길한,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 연구 Vol.23, pp.91-122, 1997.
- [10] 장선옥,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교수 요목개발”, 안동과학대학 논문집 제25호, pp.27-64, 2003.
- [11] 문인옥, “일부 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보건교육학회 한국보건교육학회지, Vol.14(2), pp.95-112, 1997.
- [12] 신수옥, “보건전문대학생의 전공분야에 대한 만족도와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1987.
- [13] 이정희, “서원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21집, pp.31-67, 2003.
- [14] 박선영, “대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pp.77-78, 2002.
- [15] 이창신, “덕성여대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16(3), pp.69-103, 2000.

김 선 미(Sun-Mi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의학 및 의료정보박사수료
- 2006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 보건의료정보과 조교수

<관심분야>
보건학, 의료정보, 의무기록

최 진(Jin Choi)

[정회원]



- 2009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수료)
- 2006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 보건의료정보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보건학, 보건행정학